

한국의 돌봄공백과 결혼이주여성이 수행하는 노인돌봄에 대한 사례연구

조경진*

■ 국문 초록 ■

한국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돌봄공백에서 야기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돌봄은 사회적 재생산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가족과 기업/사회공동체, 나아가서 국가가 재생산될 수 있는 기반인데, 이 세 가지 차원은 상호공존하는 것으로, 한 차원에서의 위기는 다른 차원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에서의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나기 전에 지방도시와 농어촌에서 경험된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가족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적극적으로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을 독려하고 지원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2세를 낳고 양육하는 사회적 재생산의 주체로서 인정을 받고 조명되어 왔으나, 결혼과 함께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수행하게 되는 노인돌봄자로서의 역할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노인돌봄과정과 범위, 그리고 돌봄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과 결과를 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조명하여 이들의 돌봄을 가족재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의 차원에서 논의한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와 동거를 하면서 상호돌봄 체제를 이루게 되는데, 어른이 지병이 생기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때 주돌봄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3세대 가정을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사된 여성들은 노인돌봄의 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우고 있었는데, 사회적 지지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본인들이 부여하는 의미는 매우 달랐으나, 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피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가족돌봄자가 짊어지는 어려움을 엿보게 했다. 사례를 토대로 이주여성의 노인돌봄이 사회적으로 갖는 주변성을 지적하고, 이들의 노인돌봄을 효행으로 치하하는 행태가 사적영역에서의 돌봄을 부추김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돌봄의 사회화를 지연시키고 저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가족재생산, 사회적 재생산, 노인돌봄, 돌봄의 사회화

* 조경진: 고려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부교수 및 로잘린카터케어기빙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관심분야는 중남미 지역개발, 발달장애와 돌봄에 대한 비교문화연구이다. E-mail: azinku@cuk.edu

I. 서론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동반되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로 공론화되고 논의되어 왔다. 사회적 재생산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재생산 위기 담론은 세 가지의 상호연관되는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다. 먼저, 가족 안에서 차세대가 양상되지 않고 나아가서는 가족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차원에서 가족재생산의 위기가 제시되었다. 둘째는 인구의 유출과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더욱 취약해지는데, 농어촌과 도시의 인구구성의 차이를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인구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적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이 맥락에서는 지역사회의 위기가 제시되고 있다. 셋째는 국가의 존폐위기인데, 국가를 구성하는 지역단위, 지역단위를 지탱해주는 가족단위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재작동하지 못하면 국가의 생산력을 지탱해줄 인구는 과연 누구이겠는가 문제이다(이재경, 2004).

이 논의는 사회적 재생산의 과정을 가족, 기업-사회공동체와 국가의 맞물림과 상호의존으로 설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재생산될 수 있게 가족구성원을 충원하고, 차세대를 돌보고 학습·사회화시키며 능력을 배양해서 기업과 사회공동체가 재생산될 수 있는 기반과 제반과정을 제공한다. 기업과 사회공동체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국가도 재생산이 되며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는다(장경섭, 2011). 가족영역에서 재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가족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도 낳지만, 서로 맞물려 있는 사회적 재생산과정도 큰 타격을 입는다. 현재 한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담론이 국가의 존폐위기와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가족재생산의 위기가 국가의 존폐에 매우 위협적이라는 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하여 이 위기를 예방하고 타개하는 데 의지를 보여왔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보육지원정책을 비롯해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취약노인 가구를 지원하는 기반도 다졌다. 이러한 정책은 돌봄공백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대응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원의 내용과 폭에 있어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또한 돌봄의 사회화를 촉구하는 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복지가 정치적 쟁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현실사회에서는 가족재생산 기반이 먼저 무너진 지방도시와 농·어촌에서 자생적으로 가족재생산의 기반을 다지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들이 있었다. 인구학적 성비의 불균형이 심한 지역에서 나이 든 총각들이 외국출신의 배우자를 들이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다문화가정’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로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실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초기연구들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현상으로서 다문화가정의 구성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과정에 주목하고,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점과 어려움 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이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과 정착을 돕는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2006년에 정부는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지원대상을 결혼이주여성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가족까지 포괄하는 사회통합지원정책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과 한국사회에서의 이들에 대한 수용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었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보다 더 세부적으로 가족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자녀들의 원활한 학습과 한국사회로의 통합,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본인의 취업 등 자립과 한국사회에서의 자리찾기 쪽으로 정책방향이 선회했다(이태정 외, 2013). 2006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법』은 결혼이주여성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2세를 한국인화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방한 것이었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최근의 관심과 지원도 2세를 출생시키는 재생산의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을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Lee, 2012).

이처럼 2세를 낳고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집안의 노인이나 취약자가 있을 경우에 수행되는 수발 및 돌봄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거의 없었다.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비율적으로 일반 한국인 기혼여성에 비해서 남편의 부모나 형제와 동거하며 3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돌봄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 현재 ‘돌봄의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에 결혼이주여성을 자리매김하고 분석한 경우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지방도시에서 노인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사례연구를 통해, 노인돌봄에서 이들의 역할과 의미를 사회적 재생산의 맥락에서 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 노인돌봄의 공백을 우려하는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 공백을 메우는 한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함과 동시에 새로운 가족관계 안에서 어떻게 시부모의 돌봄자가 되고, 이러한 과정은 가족을 재생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또는 기여하지 못하는가?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노인돌봄은 시부모와의 동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되는데, 가정에서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본인들은 이 제 과정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수행하는 노인돌봄은 가족의 유대와 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결혼이주여성의 노인돌봄이 현재 돌봄의 공백과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갖는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재생산의 딜레마, 돌봄공백과 돌봄노동의 세계화

사회적 재생산 위기의 논의에서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돌봄의 위기이다. '사회적 재생산'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었지만, 바커와 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류의 생물학적 재생산, 즉 출산을 둘러싼 조건과 사회적 구성; 둘째, 노동력의 재생산, 즉 생존 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 셋째, 가족 또는 사회,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의해서 친밀하게 제공되고 충족되는 돌봄의 재생산(Bakker & Gill, 2003; Lee, 2012에서 재인용).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사회적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가 더 중요하고 결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 항목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한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돌봄의 공백'은 가족 재생산의 한 차원에 불과할지라도, 생물학적 재생산과 노동력의 재생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재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본 절에서는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재생산의 단절과 돌봄공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결혼이주 현상을 정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노인돌봄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돌봄의 위기는 한국사회가 걸어온 궤도의 결과로서 가족과 사회, 국가가 각 영역에서 어떻게 참여하여 이러한 결과를 낳았는지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장경섭(2011)은 돌봄의 위기, 나아가서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한국의 국가주도 자본주의 산업화와 사회의 최우선 가치와 목표로 설정된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이 빚어

낸 “개발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개발자유주의는 정책적 차원에서는 탈정치화, 기술관료화, 개발주의적 착종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시민을 사회보장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경제개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권을 획득하는 “개발시민”으로 상정한다. 즉, 시민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기 보다는 생산에 참여하여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는 존재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개발자유주의는 사회적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 먼저 농업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붕괴가 보여주듯이 개발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부문은 아예 사회재생산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특정산업의 생산과 성장 극대화에만 모든 공적·사적 자원의 투입을 유도한다. 그리고 사회재생산의 책임과 비용은 국가가 아닌 노동자 개인 또는 가족에게 전가된다(장경섭, 2011: 5). 한국의 경우, 국가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러한 개발주의적 성향을 내면화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는데, 한국인들 모두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져다 준 소득향상과 계층의 상향이동을 추구했기 때문이다(장경섭, 2011: 6). ‘개발시민’은 더 이상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없어, 급기야 돌봄을 포기하게 된다. 가족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돌봄의 공백, 나아가서 국가가 사회적 돌봄을 수행하지 않고 그 부담을 모두 가족으로 넘긴 상황에서 가족은 더 이상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장경섭이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개발자유주의로 풀어내고 있다면, 조한혜정은 돌봄의 위기를 “압축적 불균형 토건국가의 개발주의”로 설명하고 있다. 가족은 국가개발주의와 뜻을 같이 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했는데, 역시 가족단위에서의 부의 축적과 계층이동이 주동력이다 (조한혜정, 2006: 24). 밀레니엄 전후로 포스트포디즘, 소비자본주의의 확산은 개발주의를 가속화하고 심화시켰는데, 이는 사적영역에 있던 여성들을 개발현장에 투입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런 구도에서 “기존의 공공/가정, ‘남성-부양자/여성=돌봄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성립되기 어렵다. 독신여성이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급격하게 늘어난 이혼은 기성 가족의 해체를 드러내는 징후들이다. 한국처럼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근대국가를 재편한 사회는[sic. 사회에서], 가족의 해체는 사회전체의 안전망이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조한혜정, 2006: 25).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공적영역에서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생활세계와 관계맺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공적영역에서의 강한 노동강도는 사적영역에서 필요한 잉여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국사회에서 생산에 밀려난 돌봄은 젠더화된 노동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그

위상이 더욱 더 주변적이다. 돌봄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가정에서 대가없이, 그것이 노동이라는 인식없이 수행해 온 ‘당연한 일’로 취급되었는데, 최근의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돌봄을 여성이 수행하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그 노동을 평가절하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공적영역에서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문현아, 2012; 허라금, 2006; 폴브레, 2001). 그런데 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정에서 돌봄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공적영역에서 돌봄노동시장이 형성되는데, 노동시장에서도 돌봄은 젠더화된 노동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모두의 차원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위기는 돌봄의 젠더화와 무관하지 않다. 돌봄은 사회적으로 여성이 수행하는 일에서 노동으로서의 가치가 낮게 매겨지고,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인 행위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으로 전락했다.

돌봄의 공백을 먼저 경험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와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를 제3세계 출신의 여성이주노동으로 채워왔다. 개발국의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의 여성화’는 ‘돌봄의 세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Parreñas, 2001). ‘돌봄의 세계화’는 재생산 노동의 국제적 분업으로 이어진다. 이주여성 돌봄노동자는 개발국에서 필요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벌어들인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면서 그 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된다. 본국에서의 자녀돌봄은 이주노동자의 부모나 다른 친인척이 맡게 되어, 결국 ‘돌봄의 세계화’는 젠더를 중심축으로 계층화된 ‘전지구적 돌봄사슬(global care chain)’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cf. Hochschild, 2000; Yeates, 2009). 이로써 이주여성 돌봄노동은 노동이 이루어지는 개발국에서는 재생산의 메카니즘을, 이주여성 본국에서는 생산의 메카니즘을 작동시킨다고 분석되고 있다(Kim, 2014). 한국의 경우 아동돌봄과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중국 연변동포 여성들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혼을 통한 이주의 과정을 통해서 돌봄을 수행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결혼이주를 어떤 교환관계 안에서 파악하는가에 따라 다른 답을 내릴 수 있다. 이현옥(2016)의 경우, 결혼이주를 사회적 재생산의 맥락에 자리매김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내 무임금 돌봄노동이 노동계급의 재생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사회적 재생산 차원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재생산을 수행하고, 본인이 생산활동을 하거나 한국배우자 및 가족들이 본국

에 송금할 자금을 주는 경우에는 생산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미와 류유선(2013)은 결혼이주여성 수행하는 ‘노동’을 이처럼 재생산과 생산영역에 자리 매김하여 이들의 재생산 역할이 더 큰 비중으로 연구되었음을 비판하며 생산영역에서 이들이 갖는 능동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결혼이주여성도 결혼이민의 제 조건과 교환의 규칙을 이해하고 충분히 보상받으려고 하는 주체로서 조명하고 있다. 그런데 결혼은 두 사람간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과연 결혼이민은 전적으로 경제적인 거래로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다. 이재경(2009)은 사랑과 친밀성, 돌봄이 비물질적이며 경제의 영역과 별개의 것이라는 인식이 시대착오적인 신화라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는 “사랑과 경제가 상호 결합되는” 모호한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생산과 생산의 맥락에서 결혼이주로 인해 생성되는 가치와 그것이 교환되는 맥락과 상황을 각 사례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사랑과 친밀성은 꼭 ‘교환’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관계맺기와 관계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므로 같이 고려하고 분석하기로 하였다.

2. 노인돌봄과 결혼이주여성

돌봄이 사회에서 어떠한 제도와 주체를 통해서 제공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제시된 개념으로는 ‘돌봄레짐(care regime)’과 ‘돌봄의 사회적 조직방식(social organization of care)’이 있다. ‘돌봄레짐’은 “돌봄의 분배 및 제공을 통해 돌봄의 필요가 충족되는 제도적 공간적 방식”을 의미하며, 돌봄제공을 수행하는 제도, 즉 국가나 시장, 가족이나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논의되었다(Kofman & Raghuram, 2009: 6; 이현옥, 2016: 242에서 재인용). ‘돌봄의 사회적 조직방식’은 ‘돌봄레짐’ 개념의 근거로 국가가 입안하는 정책과 제도가 확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차원을 보완하고자 그 구성적 과정과 성격도 포함시켜서 돌봄을 접근하고 있다(Esquivel, 2010; 이현옥, 2016: 243에서 재인용).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활용하고자 하는데, 현재의 노인돌봄구조를 논의하는 데는 ‘돌봄레짐’이 적합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는 새로운 ‘돌봄레짐’의 구성과정을 조명하는 데 ‘돌봄의 사회적 조직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그간 가족이나 친족집단이 수행하던 노인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해서 점차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점에 있다. 이러한 전환은 단지

누가 돌봄을 수행하느냐의 문제, 사적체계나 공적체계냐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도 포괄한다. 전통적인 돌봄레짐에서는 ‘도와주고 보살핀다’는 행위적 차원이 강한 ‘돌봄’이라는 차원보다는 의무적 요소가 강한 ‘부양’이라는 개념이 더 컸고, ‘수발’은 ‘부양’의 하위개념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용되는 돌봄개념이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공적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노인돌봄레짐에 있어서 ‘부양’ 보다는 ‘돌봄’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가족의 노인부양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장경섭외, 2015). 이 제도는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노인이 만성질환이 있거나 일상생활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집에서 또는 시설에서 받을 수도 있다.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5-20% 선이며, 나머지는 공단(국가)에서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면제 받고, 소득이 일정금액보다 적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가 경감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급판정의 범위가 좁고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약 6% 정도가 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국민보험공단, 2014). 그 이유는 이 제도가 노인의 시설입소보다는 가능한 한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2항). 노인이 치매 등으로 가족이 돌보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한 경우에만 시설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제도는 가족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장경섭 외, 2015: 23). 2014년에 시행된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구성원이 노인돌봄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된 노인 중의 신체적 기능 저하자의 81.7%가 수발을 받고 있었으며, 그 중 91.9%가 가족으로 수발을 받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같은 해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효 규범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2010년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법은 정부가 독려하는 가족/노인돌봄 레짐은 가족돌봄이라는 것을 잘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 법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생활하는 3, 4세대 가구를 ‘효행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효행수당 혹은 효행장려금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노부모와의 동거를 효행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효행법은 노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 ‘효행’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장경섭 외, 2015). 효행법은 우리나라가 노인요양보험제도로 돌봄의 사회적 지원을 지향하지만, 사실상 아직은 가정에서 행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돌봄’의 영역, 효행법은 ‘부양’의 영역이라는 구분을 지음으로써 현실에서는 사실상 경계가 모호한 ‘부양’과 ‘돌봄’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이원화시켰다. ‘돌봄’이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와 이 행위를 둘러싼 주체들 간의 관계(Daly, 2002: 252)로 해석되는 만큼, ‘부양’을 ‘돌봄’의 상위개념을 볼 수 있는 있으나, 행위로서 이 과정들이 구분되지 않고, 또 일정한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별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특히 배우자 부모세대와 함께 사는 가정이라는 일상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접근할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는 광의로 시부모님과 동거를 하면서 ‘모시고 사는’ 일련의 과정을 ‘부양’으로 규정하고, 시부모가 구체적인 지병이 있어 별도의 돌봄행위가 필요한 경우를 두고 ‘돌봄’으로 접근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과 함께 한국인 남편의 ‘식구’가 되어 남편의 가족제도에 편입된다. 한국인 남편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출산과 양육, 어른 돌봄때문이라고 막연히 인식되고 있으나, 어른 돌봄과 가족재생산 차원은 실제로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2000년대 중반에 수행된 많은 조사들에서, 외국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들은 “배우자가 순종적이고, 부모를 잘 모실 것 같아서(농촌 39.5%, 도시 36.9%)”라는 이유로 국제결혼을 택한 것으로 나왔다(여성가족부, 2006; 유은주, 2011: 148; cf. 김명혜, 2012). 결혼이민자와 일반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여부를 비교한 조사에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 결혼이주여성 및 한국인배우자의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여부 비교

구분	시부모 (장인·장모) 모두 동거	시아버지 (장인)만 동거	시어머니 (장모)만 동거	시부모 (장인·장모) 모두 비동거	합계
결혼이주여성	18.8	2.9	22.1	56.1	100(918)
한국인배우자	10.8	1.6	13.8	73.8	100(8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표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의 부모 중 최소한 1인 이상과 같이 사는 형태의 가구가 일반 한국인배우자의 가정보다 약 2배 높았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수가 도시보다 높은 지방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표 2>와 <표 3>은 각각 2007년 경상북도와 2006년 전라남도에서, 도시와 농촌에서의 시부모와 동거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시조부모를 포함하여 시부모 중 최소한 1인 이상과의 동거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표 2> 2007년 경상북도 다문화가정의 도시와 농촌에서의 시부모와 동거 빈도와 비율

가정구조	농촌		도시		합계	
	n	%	n	%	n	%
N=3,649 시부모(시조부모 포함) 동거가구	1,464	58.9	317	32.3	1,781	51.3

자료: 경북여성정책연구원, 2007

<표 3> 2006년 전라남도 다문화가정의 도시와 농촌에서의 시부모와 동거 빈도와 비율

가정구조	농촌		도시		합계	
	n	%	n	%	n	%
N=1,543 시부모(시조부모 포함) 동거 가구	648	48.4	50	25.1	698	45.3

자료: 전라남도, 2006

기존의 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0.5%로, 언어소통의 어려움(34.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노인돌보기(16.2%), 그리고 노인 건강챙기기 및 간병(15.8%)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김유경, 2009: 45에서 재인용).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거의 모든 결혼이주여성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항목이다. 소통의 어려움은 이들이 한국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겪는 어려움인데, 다른 경험항목들과 무관할 수 없고 다른 경험들의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낸다. 특히 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세심하게 응대해주는 역할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데, 이처럼 기본적으로 성립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돌봄도 역시 어려움에 봉착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돌봄경험에 대한 기존연구는 많지 않아서, 이 점에 대한 기존 논의는 제한적으로만 제시할 수밖에 없다. 고령의 연로한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돌보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하는 돌봄상황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이 제한된 상황에서 돌봄수혜자인 시아버지는 답답함을 호소하며 외국인 신부를 들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아들에 대한 불평과 신세한탄을 하였고, 며느리는 최대한으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신뢰와 상호인정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여 낙심하는 상황이 잘 묘사되었다(유은주, 2011). 돌봄자와 돌봄수혜자간의 의사소통과 신뢰는 돌봄자가 직계가족(예를 들어 딸)이거나 요양보호사일 때와 관계없이 모두 돌봄의 질과 관계당사자 모두의 안녕에 필요한 조건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신경아, 2010). 그 외에도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시)부모를 돌보는 자녀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피폐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희경, 2009). 가족돌봄자를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협받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숨겨진/보이지 않는 환자(hidden patient)’로 이해하는 연구들이 많아졌는데(cf. Carter, 1994), 결혼이주여성은 이미 정착과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노인돌봄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그 부담이 가중되고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돌봄이 과연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의 댓가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노인돌봄상황과 경험에 대한 연구가 적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결혼과 더불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시부모의 돌봄자 역할을 맡게 되는지를 기술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돌봄의 내용과 그 특성들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특히 가족돌봄에 있어서 친밀성과 신뢰성 형성과 본인들이 느끼는 도전과 보람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수행하는 노인돌봄의 효과를 가족재생산 차원에서 발견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돌봄이 자신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가족을 유지하는 데 어떠한 효과성을 갖는가?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노인돌봄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현재 한국의 노인 돌봄 추이와 관련하여 기술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방법론은 사례에 대한 자료를 나열하는 미시적인 연구방법으로 흔히 오해되는데, 연구질문에 따라서 방법적으로 보다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주제들을 같이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구, 2008: 345). 한정된 사례를 조사하더라도 각 사례에서 사람들의 살아온 방식, 행동경위, 이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과 동기, 가족적 상황 등은 개인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노인돌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취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에서의 노인돌봄에 대한 문헌자료들을 찾고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대상자와 연구질문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지에서는 대상에 대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연구자와 1:1로 비교적 공식적으로 진행한 생애사 중심의 심층인터뷰와 자신의 가정 또는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참여관찰, 연구대상자와 주변 지인들과 이루어지는 비공식 면접들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1-2월에 세 차례에 걸쳐 중소도시 규모의 전라남도 S시를 방문하여 이루어졌는데, 2박3일 간의 3회의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지역으로서 S시는 연구대상자인 일본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인 유키씨(가명)를 알게 되면서 선정하게 되었다. 유키씨는 막내 딸인 신애(가명)엄마로 불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애엄마로 지칭하기로 했다. 신애엄마는 신앙심이 깊은 통일교 교도였는데, 신애엄마의 소개로 통일교 교회에서 참여관찰을 할 수 있었다. 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하

고, 목사님 내외분과 신도들과 공식, 비공식 면접을 진행했다. 신도들과의 만남에서는 대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여성신도들과 한국남성들로 구성된 남성신도들을 별도로 면접하여 통일교의 가족주의 원리와 실천방식에 대한 내용도 조사했다. 여성신도들 중에서 노인돌봄을 오랜 기간동안 해온 신도들 두 명과는 별도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노인돌봄이 통일교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더불어 S시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과 프로그램 개발자와의 심층면접으로 자료를 보충하였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소개받은 태국출신의 결혼이주여성 제니씨(가명)와 본인의 집에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제니씨의 시어머니와 면접을 시도했으나 시어머니가 거부하여 진행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대변하는 일로 해석이 되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며느리의 '손님' 자격으로 집에 온 연구자를 환영하지 않는 기색이었다. 대신에 제니씨의 12살된 딸 혜정(가명)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내용도 포함시켰다.

심층면접은 대상자가 허락할 때에만 녹취해서 전사 했고,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트필기로 대신해서 정리하였다. 조사결과에는 면접내용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참여관찰과 면접, 제니씨 집에서 관찰한 내용도 포함시켜서 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들과는 2012년 중순까지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으면서 자신들의 건강이나 돌봄대상자 병환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업데이트하였다.

2. 조사항목과 배치

연구대상자와의 심층면접은 생애사 인터뷰의 형식을 취했는데, 자료를 세 가지의 기점을 두고 분류해서 접근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결혼과 그 이후 한국에서의 정착, 시부모님과 동거가 시작되는 계기를 기점으로 하는 항목이다. 두 번째는, 시부모님의 부양과 돌봄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내용, 이들을 둘러싼 그 외의 가족관계와 주변의 관계에 대하여, 돌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점으로 한다. 세 번째는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과 관계망, 그리고 건강상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항목들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노인을 돌보는 결혼이주여성 심층면접 항목과 내용

대분류	소분류	내용
결혼과 시부모의 동거	결혼경위	국제결혼을 하게 된 경우, 과정, 정착
	동거와 분가, 합침의 배경	임신과 출산, 경제적 조건
돌봄의 시작과 과정	돌봄에의 의지	자발성과 비자발성 합의에 따른 계획과 우연
	돌봄 내러티브	돌봄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 구체성
	돌봄의 사회적 맥락	대상과의 친밀도, 연민, 받는 지원(요양보호사)과 주변의 지지
돌봄자의 일상과 건강	사회적 관계망	친구 등 정서적 지지와 교감의 대상 유무
	건강	지병의 유무와 정신적 상태

3. 연구대상

조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시점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두 대상자의 배경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애엄마는 1995년에 통일교를 접하면서, 교회에서 권장하는 국제결혼 준비를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 1997년부터 테이프를 들으면서 한국어 공부를 했고, 1998년에 교회를 통해 신애아빠를 만나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신애아빠는 당시 M군에서 부모를 모시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신애엄마는 결혼과 동시에 M군에서 남편, 시부모와 시동생과 함께 기거하며 5인 가족의 살림을 맡아서 했다. 남편의 형제관계는 9남매로, 고모 한 사람은 S시에 살고 있었고, 나머지는 부산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고 했다. 2000년에 신애엄마가 첫 아들을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S시에 취직하게 되어 분가를 하게 되었다. S시에서 아이를 둘 더 낳았는데, 면접 당시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시어머니는 M군에서 농사를 혼자 짓다가, 치매기운이 돌기 시작하여 S시에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

제니씨는 방콕 근처의 농가에서 태어나서, 집안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다니던 중에 방콕에서 두 시간 떨어진 의류공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다. 여동생이 통일교를 통해서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어 언니인 제니씨에게도 국제결혼을 권유해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2000년, 본인이 31살일 때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끈질기게 구애를 했는데, 국제전화로 한달에 30만원을 써가면서 제니씨를 설득시켰다고 한다. 태국의 통일교 목사님도 결혼을 강권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한 이후 조사 시점까지 시어머니와 동거를 하고 있다.

연구자가 심층면접한 결혼이주여성의 특징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대상자의 특성

	신아엄마	제니
연령 (2011년 당시)	39세	42세
출신 국가	일본	태국
학력	전문대 졸	중졸
결혼기간 (한국거주 기간, 2011년 당시)	13년	11년
종교	통일교 (독실한 신앙, 활발한 교회생활)	통일교 (교회 불참, 신앙심 없음)
동거 가족	남편, 2남 1녀, 시어머니 (6인 가구)	1녀, 시어머니 (3인 가구), (남편은 부재)
남편의 가족구성	시아버지 사망, 9남매	시아버지 사망, 5남매
남편 가족의 가족관계	부분적으로 유대감 있음	전혀 유대감 없음
돌봄 대상자	장애인 남편, 치매걸린 시어머니	파킨슨병, 당뇨병이 걸린 시어머니
평균소득(월)	200만원	50만원

IV. 조사결과

1. 시부모와의 동거에서 돌봄으로

1) 결혼과 정착에서 시작된 동거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떤 가족적 맥락과 상황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되며 이것은 어떻게 돌봄의 상황으로 연결되는가? 신아엄마와 제니씨 모두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님(제니씨의 경우 시어머니)과 같은 집에서 살고 살림을 하게 되었다. 신아엄마의 경우, 남편이 형제들이 많지만 결혼시점에서 부모님과 함께 M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신애아빠는 교통사고로 경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는데, 부모와 함께 기거한 것은 장애가 있어서 그러기도 했지만 장가를 가기 전에 특별히 분가를 할 이유가 없어서이기도 했다. 신애엄마는 약 5년간 시동생을 포함한 5인 가족의 살림을 맡아서 했는데, 그때 시부모가 특별히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본인은 집에서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의 살림살이만 했지, 병수발 같은 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애엄마는 독실한 통일교 교도였는데,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고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일인 만큼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연구자: 결혼할 때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괜찮았어요?

신애엄마: 네, 네... 우리교회에서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 같이 다니는 언니들 중에 그런 사람을 많이 봐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그렇게 살자고 했을 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신애엄마는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같이 모시고 살다가 임신을 하면서 S시로 이사 나와 분가를 하게 되었다. S시로 가게 된 것은 그 곳에 사는 남편 누나가 일자리를 알아봐준 덕분이다.

제니씨의 경우는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고 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같이 산다는 얘기도 구체적으로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떻게 살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어떤 집에서, 다른 가족이 같이 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었고,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혼할 당시에 시어머니는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이 자녀 저 자녀의 집을 떠돌아다니면서 결국 제니씨네 눌러앉으셨다고 했다. 그런데 신애씨와는 달리, 같은 통일교도였지만 제니씨는 결혼과 함께 남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크게 당황하고 놀랐다고 했다.

연구자: 결혼하시자마자 어머니가 같이 들어와 사셨어요?

제니씨: ... 2005년까지는 우리가 K섬에서 살았어요. 내가 한국 와서 처음 살은 집. 아주 작았어요. 방 하나에 부엌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가[시어머니가] 같이 살아요. 방도 작고. 많이 불편했어요.

연구자: 남편이 장남이세요? 큰아들?

제니씨: 아뇨. 넷째 아들. 다섯 명인데 넷째.

연구자: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제니씨: 몰라요. 안 와요. 전화도 안 해요. 이해가 안되요. 엄마 생일이나 추석 때도 전화 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도 모아서 모아서 태국에 아빠, 엄마에게 전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남편 형제들은] 엄마에게 전화 안 해요.

제니씨는 결혼 전에 남편의 경제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한국에 와서 크게 당황했었지만, 본인도 태국서 유복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놀라기는 했어도 그것 때문에 남편을 미워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제니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형제들이 어머니를 찾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가족끼리 친화력이 좋았던 제니씨는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당황스러운 점이 소원한 가족관계와 남편의 부재였다.

2) 돌봄에의 의지: 자발성과 비자발성

본 연구의 두 사례 모두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보는 경우이다. 신에엄마의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결정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보게 된 반면에, 제니씨의 경우는 같이 살다가 어머니의 발병으로 ‘그냥 그렇게’ 돌봄이 시작된 경우이다.

신에엄마는 출산과 함께 인근 소도시로 분가를 해서 5년 정도 살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신에엄마는 운전을 할 줄 알아서, 시어머니가 식사를 못하고 치매증상을 보이자 M군에서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다가, 기동력이 있고 또 도시에 있는 것이 좋다는 가족들의 판단에 따라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게 되었다. 그런 결정은 혼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고모(남편의 여자형제)와 남편과 같이 상의해서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 결정에는 본인의 뜻도 컸는데, “며느리로서 내가 돌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라고 하였다. 그런데 제니씨의 경우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이렇게 가족들의 논의와 합의에 따른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제니씨는 시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자주 언급했는데, 동거를 하게 된 이유에는 어머니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제니씨는 신에엄마처럼 똑같이 통일교 매개로 결혼을 했지만, 제니씨

는 통일교가 원하는 3세대 가족과 어른부양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크게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제니씨는 S시로 이사오면 남편의 일거리도 많아서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신혼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로 구인광고를 쫓아 이 곳, 저 곳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면접당시에도 남편이 지금 어디에서 머물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니씨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남편이 행방을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본인이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을 잘 몰라서”, 즉 지리를 잘 알지 못해서, 말해줘도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남편은 일년에 한두 번 정도만 S시로 돌아왔는데, 그 때 집에 잠깐 들러서 하루 이틀만 자고 갈 뿐, 오래 남아있지 않는다고 했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10일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연락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었다. 남편은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전화를 자주 하지도 않았다. 남편이 항상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어머니의 약값이 비싸지는 않은데, 한 때는 돈이 없어서 약을 약 1달간 끊은 적도 있었다. 2003-04년도가 가장 힘들었는데, 쌀을 살 돈이 없어서 동네의 자선단체의 도움을 그 때 몇 번 받았다고 했다. 돈이 부족해서 자기가 시집오기 전에 태국서 벌어들인 돈을 송금해달라고 했어야 했다.

제니씨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썩 좋지 않게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감이 있음을 얘기해주었다. 임신 중에 먹고 살 것이 없고, 정 붙일 때도 없을 때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였다는 것이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돌볼 때도 있었고, 딸 혜정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아기보는 것도 도와주면서 함께 지냈다는 것이다.

제니씨: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남편은 없고. 차라리 엄마가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혜정이[딸]는 지금 할머니와 잘 지내니까. 혜정이 어릴 때 많이 도와줬어요.

제니씨는 부족한 살림을 꾸리느라 S시 중앙시장에 있는 닭갈비 집에서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썬빙을 나갔다. 이 시간에는 딸 혜정리와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서로를 돌본다. 이 일을 꽤 오래 했는데, 한 달에 약 40만원의 수입과 남은 식자재와 음식을 조달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월세 25만원을 제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업으로 태국 과자를 구워서 팔기 시작했다.

신애엄마의 경우는 아이를 셋 낳고 나서 남편의 도움과 인근에 사는 시누이의 도움

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남편이 아이들을 때때로 돌봐주어서 운전면허도 딸 수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아 방과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위 ‘현대적인’ 교육관리도 시행하고 있었다. 교회에 다른 일본인 엄마들이 여럿 있는데,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교육정보, 살림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평범한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던 때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것이다.

2. 돌봄의 과정

1) 돌봄 내러티브

어른에 대한 돌봄이 시작되는 시점은 특별히 언제부터라고 두 사람 모두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치매, 파킨슨병), 살림의 합침, 가시적으로 드러난 어머니 상태의 악화 등 여러 사건들이 돌봄의 시작시점으로 얘기되었다. 두 사람이 수행하는 돌봄의 종류는 매우 달랐지만,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감정 없이 같이 살고 병수발을 하고 있다는 데서 공통점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신애엄마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신애엄마는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을 아주 조리있게 잘 설명해주었다. 연구자의 경험에 따르면, 정교하고 조직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로서 ‘돌봄’ (또는 ‘어른을 모시는 것’)이라는 상황과 행위를 잘 이해하고 어떠한 점이 기대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 신애엄마는 자신에게 부여된 돌봄의 과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교회에서 배운대로 그것을 행하는 데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교회의 신도들을 만났을 때 3세대가 함께 사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고, 어른에 대한 돌봄은 ‘의례’ 하는 것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수행하는 일이었다.

신애엄마의 시어머니는 조사당시 85세로, 치매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어 약물을 써도 큰 차도가 없었다.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주었다:

신애엄마: 밤에, 잘 때, 이불에 시아버지 사진액자를 옆에 놓고 “영감”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할아버지에게 밥 차려주고 옷 입혀주는 시늉을 자주 해요. ... 유난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좋아해요. 나는 아이들 때문에 주택으로 이사가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워낙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좋아해서 안 하기로 했어요. ... 집에 있으면 답답해해요. 그런데 외출도 힘들어요. 자주 가고 싶어

해서 같이 나오지만...

연구자: 외출이 왜 힘들어요?

신애엄마: 햇빛... 햇빛이 반짝거리는 표면에 반사되면 심한 발작증세를 일으켜서...

연구자: 어떤 표면에?

신애엄마: 자동차 같은 것에 반사되잖아요? 그럼 그게 다른 것으로 보이거나 봐요. 소리를 지르시고, 내가 진정하려고 하면 밀어내고 때려서... 넘어져서 다친 적도 있어요. 옷이 찢어지고...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또 “나가자”고 해요. 그러면 또 나가요.

연구자: 다치기까지 했으면 좀 심각하네요.

신애엄마: 그래서 흐린 날이 외출하기 좋은 날이에요. 그런 날은 아주 성공적인 외출을 하고 어머니 운동도 많이 시켜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제니씨는 어머니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는 못했다. 본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실제로 어머니를 ‘간병’하는 돌봄을 수행하기 보다는 ‘살림’을 같이 해주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자: 어머니가 어떻게 편찮으세요?

제니씨: 파킨슨병 있고, 당뇨병도 있어요. 약을 많이 먹어야 해요.

연구자: 어떤 약을 언제 드셔야 하는지, 제니씨는 아세요? 손이 많이 떨리세요? 물리치료나 재활운동은 하세요?

제니씨: 손이 조금 떨리고, 말이 약간 이상해지고...

연구자: 물리치료는 안 하세요?

제니씨: 병원에 가끔 가요.

연구자: 제니씨랑 같이 가세요?

제니씨: 아니요, 혼자 가요.

연구자: 왜 같이 안 가세요?

제니씨: 혼자 가고 싶대요.

제니씨의 시어머니는 처음에 손을 떨어서 약을 드시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손 떨림에 이어 다리 근육도 뻣뻣해져서 외출을 삼가게 되니, 몸은 붙어나고 당뇨병이 왔다. 혈당이 치솟았던 2008년에는 요양보호사가 주 5회, 하루에 3시간씩 찾아와서 집 정리와 음식, 살림을 도와주었다. 시어머니는 요양보호사를 매우 좋아하셨는데, 제니씨는 그가 매우 고마운 존재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회상했다. 인터뷰를 했던 2011년 당시에는 혈당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요양보호사가 주 1회 찾아온다고 했다. 그 때 와서 어머니 목욕시키고, 운동시키고, 집 정리를 해주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벗을 해주는 일이었다. 음식과 청소는 자기가 할 수 있으니, 시어머니가 원하는 역할인 말벗해주고 수다떠는 일을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제니씨는 요양보호사가 무슨 요일에 오는지 그날 기억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제니씨가 하는 돌봄은 표시도 안 나고, 본인도 그다지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제니씨가 자기 목욕을 도와주는 일을 싫어해서 꼭 요양보호사로부터 목욕지원을 받는다. 요강 비우는 일도 어머니가 스스로 한다. 그러나 제니씨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일과 집안정돈, 청소를 맡고 있었고, 세탁기가 없어서 식구들의 빨래를 손으로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불빨래였는데, 어머니 떨림이 심해질 때가끔씩 밤에 소변사고가 나서 이불을 빼는 일이 제니씨에게 “큰 일”이었다. 제니씨는 좁은 화장실에서 물에 젖으면 자기보다 더 무거운 이불을 빼는 일이 가장 힘겹다고 했다. 여름에는 잘 마르지도 않아서 곤욕을 치룬 게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게다가 이불을 다시 살 돈이 넉넉치 않아서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신애엄마의 어머니 돌봄은 훨씬 더 가시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일단 근처에 사는 시누와 분업을 해서 신애엄마는 오전에, 그리고 아이들이 오후에 하교할 즈음부터는 시누가 와서 어머니를 돌본다고 했다. 신애엄마는 시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수발을 오후시간만 제외하면 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전에 씻는 것에서 시작하여, 일주일에 3번 목욕시키는 일, 식사와 옷 입는 것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뒤를 씻어주는 일을 했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소식하는 습관이 있어 엄청난 배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직은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어서 그다지 힘들지는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애엄마는 시종일관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돌봄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2) 돌봄의 사회적 맥락: 지지와 지원

신애엄마와 제니씨가 생각하고 말하는 돌봄의 내용과 그 구체성은 서로 많이 달랐다. 두 사람이 각기 어머니돌봄을 생각하는 방식과 실천하는 방식도 달랐는데, 그것은 각자의 개인적인 특성(학력, 신앙심)과 각자가 놓여진 상황과 맥락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애엄마는 돌봄수행에 있어서 이를 이해하고 또 지원받는 원천이 자신의 신앙이자 교회공동체였다. 제니씨의 경우 통일교도이기는 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돌봄문제를 교회와 전혀 연관시키지 않았다. 대신에 현실적인 차

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얘기를 하였다.

신애엄마가 어머니 돌봄을 힘겨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대체적으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돌봄자, 특히 며느리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소변을 받는 등의 간병행위와 발작에 대해서 힘겨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점은 어느 주일날, 통일교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통일교 주관으로 결혼한 많은 가정이 3세대 가정을 이루고 있고, 시어른을 잘 모셔서 지역사회와 교회 모두에서 모범이 되는 효부들이 있다. S시의 통일교 성도 중에 4명의 자녀를 두고도 10년간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있었다. 연구자가 면접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른 신도들이 “이 엄마 대단해, 정말 대단해”, “정말 감동이야, 감동!” 하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배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지 오래됐는데, 단 한 번도 기저귀를 채운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본인이 “깔끔한 성격이어서, 할머니로부터 나쁜 냄새가 나지 않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나쁜 냄새”가 나면 손자·손녀들이 할머니를 싫어하고 기피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교회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 아이들도 어른을 공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교리도 중요했지만, 그것을 무엇보다도 “따뜻한 어머니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표현했다. 교회에 시어른을 수발한 다른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자녀 수가 더 많거나, 농촌에 거주해서 도시에 치료차 왕래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신애엄마는 자신의 처지가 더 낫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리고 통일교에서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수발을 매우 중요한 교리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신애엄마는 신실한 신도로서 이를 내면화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제니씨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사가 주 1회 방문을 하고 있었다. 신애엄마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애엄마 본인이 아직 그럴 때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본인과 시누이가 어머니를 전적으로 돌보고 있다. 신애엄마는 통일교 교도로서 돌봄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교리적으로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최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족돌봄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집안의 어른을 돌보게 되면 요양수당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제니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렇게라도 돈을 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요양보호사시험에 두 번 응시했었다. 그리고 두 번 떨어졌다. 제니씨는 한국어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듯 했다. 연구자가 S시에서 만난 결혼이주여성들은 어차피 집에서 어른을 모셔야 하는 입장이 될 경우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본인이 수발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제니씨는 특별히 사교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았으나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교회에서 만난 또다른 결혼이민자 신도 역시 시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있었다. 실제로, 이 제도는 결혼이민자가 조금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제니씨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제니씨처럼 학력이 낮고 한국에 와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서 한국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따는 경우에도, 수행하는 일이 저임금의 고강도 신체적 노동이자 감정노동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돌봄자에서 돌봄노동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들에게도 돌봄노동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조건이 그럴 듯한 것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런 기회는 결국 공식적으로 저임금의 이주노동으로 돌봄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제니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안정성에 조금은 기여하겠지만 결국 저임금의 서비스노동자 집단이 생성되는 또하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3) 친밀성의 부재, 남편의 부재

신애엄마와 제니씨 모두 어머니에 대한 돌봄을 언급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친밀성의 부재와 남편과 관련된 언급의 부재였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며느리의 입장이어서 친밀한 정서적 관계이기 보다는 의무적 관계의 성격이 커서 그럴 수 있는데, 관계의 역사가 짧고 형성과정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신애엄마는 어머니를 언급할 때 매우 공손했고 항상 높임말을 썼으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공부를 거의 못 하셨고, 평생 자녀들을 키우면서 농사 짓느라 고생했다는 얘기 외에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 얘기를 하지 못했다.

연구자: 어머니가 치매 걸리기 전에 같이 살면서 많은 얘기를 하셨나요?

신애엄마: ... 그렇게 말이 많지가 않으셔서... 저도 그렇게 활발하고 적극적

이지는 않구요.

연구자: 치매 걸리시기 전에 어머니하고 어떤 사이이셨어요? 친했어요?

신애엄마: 친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어렵고. 거리가 있고.

연구자: 마음의 거리? 아니면 M군에 살아서 멀리 계신가요?

신애엄마: 음... 둘 다. 같이 5년간 살았지만 살림하느라,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분가해서] 따로 살고.

연구자: 어머니도 혹시 교회 같이 다니셨나요?

신애엄마: 아뇨. 교회는 나하고 아이들만 가요.

시어머니가 치매 걸린 다음부터는 대화는 더 줄어들고, 신애엄마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 되는” 대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신애엄마는 시어머니의 치매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도, 어머니가 어렵게 살아서 많이 불쌍하다거나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시어머니와 특별히 친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연구자 생각에 신애엄마는 교회공동체의 신도들과의 관계에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주는 것처럼 보였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특별히 나쁠 것은 없었지만, 다소 형식적이었던 것이다. 관계가 이같이 형성된 것은 시어머니의 성향 때문인지 신애엄마의 성향때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신애엄마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연민이나 그 외의 애뜻한 감정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삶(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 사명)의 일부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제니씨의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복잡했다. 관계가 좋지 않다고 보다는 그냥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약 두 평 남짓한 방과 부엌 겸 거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제니씨가 말을 붙여도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오고 나갈 때도 인사를 하거나 이를 알리는 일련의 행위나 말이 없었다. 여기에는 제니씨가 한국에서 10년 이상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이 꽤 서툰 이유도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시어머니는 마음을 닫은 상태로,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듯 했다. 제니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며느리와의 대화가 없었고, 대신에 손녀와는 많은 대화를 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인근에 사는 할머니들이 놀러오면 말을 잘 한다고 했다. 제니씨는 “저보다 요양보호사를 더 좋아해요”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무관심과 홀대를 서운해 했다. 관계의 기반이 없다보니, 제니씨도 어떻게 시어머니를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인터뷰 중에 시어머니가 외출을 하려 하는데, 제니 씨는 불현 듯 “엄마! 어디 가?” 하고 소리

를 졌다. 시어머니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신발을 신고 나갔다. 한국음식을 조금 잘 하게 되면 예쁘게 봐주실까 싶어서 인근의 YMCA와 여성회관에서 다문화 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여는 요리 프로그램에도 차비를 아끼기 위해 한 시간씩 걸어나다니면서 배웠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제니씨는 남편이 같이 안 살기 때문에 한국생활에서 의지할 곳은 시어머니와 딸뿐이다. 그런 면에서 제니씨는 어머니와 같이 잘 지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제니씨는 외롭다고 하면서 태국 가족들의 사진을 자주 꺼내본다고 하면서 연구자에게도 사진과 태국 부모님이 보내온 선물을 보여주었다.

연구자: 많이 외로우신가요.

제니씨: 사진 많이 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여기 엄마[시어머니]에게도 잘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는 나 싫어해요. 얘기 안 해요.

연구자: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제니씨: 마음이 아파요. 태국 엄마, 아빠하고 정말 서로 많이 챙기고 좋아해요. 여기 엄마하고 그러고 싶은데 나 미워해요.

연구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제니씨: 남편이 그러는데 나 때문이 아니고 엄마가 젊어서 고생 많이 해서 그렇대요. 고생 많이 해서. 잘 해주라고. 나도 잘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슬퍼요. ... 어머니도 외로운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요. 왜 아들 딸들이 연락을 안 하는지.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요.

제니씨는 시어머니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등 관계가 많이 소원해져 있었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 딸 혜정씨와 얘기를 해서 그들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니씨의 돌봄도 제한적이었는데, 병원에 가는 것도 어머니가 같이 못 가게 했고, 목욕을 시키는 것도 제니씨 보다는 요양보호사가 시켜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런 냉대에도 불구하고 제니씨는 자녀들이 전혀 연락도 없고, 생일도 챙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냉대를 힘겨워했으며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듯 했다.

신애엄마의 경우, 교회신도들과 가족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제니씨는 어디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듯 했다. 두 경우 모두

어머니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지만, 신애엄마는 다른 지지망과 교제 집단을 두고 있어서 생활 속에서 힘을 더 받고 잘 살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제니씨는 어머니와의 소원한 관계 때문에 본인이 더 잘 헤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있었고, 고립감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두 경우 모두 돌봄과 연관해서 남편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제니씨의 경우는 거의 연락이 두절되어서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로, 신애엄마의 경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남편과 관계가 다소 소원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 시누와 의논을 하고 분업을 했지, 남편이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두 사례에서 돌봄과 관련해서 남편의 존재는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그 부제가 언급되기만 하였다.

두 사례에서 모두 결혼이주여성과 돌봄대상자 간의 친밀성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니씨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신애엄마의 경우는 꼭 그렇지 않다.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의무적 관계여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신애엄마의 경우에는 교단에서 권하는 효성과 부양의 원칙을 수행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였고, 정서적으로 어머니와 교감을 하거나 정이 들은 것은 아닌 듯 했다. 제니씨의 경우 어머니에게 연민을 느끼고 이해하고자 했으나, 어머니가 냉대하여 본인이 태국의 식구들과 맺었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유은주는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과 국적에 대한 거부감이 돌봄관계에 있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의사소통의 부재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1: 165). 게다가 한국은 고맥락이라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말로 생각과 감정을 모두 풀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외국인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결혼이주여성의 시부모에게 적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시부모는 대화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서 두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이 돌봄을 지원하거나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관계는 더욱 더 단절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돌봄은 더욱 도전적인 일이 될 수 있다.

3. 사회적 지지망과 지병

1) 사회적 지지망

신애엄마의 경우는 시누와 같이 시어머니의 주돌봄자 역할을 하고 있던 것에 비해 제니씨의 경우는 시어머니의 주돌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신애

엄마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인 차원의 케어를 제공했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러한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인의 일과를 시어머니에게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시누와의 분업체제도 ‘적극적인 케어’를 조금 더 효과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운 것이었다. 제니씨의 경우, 시어머니가 아직 거동을 잘 하시고 세심한 케어와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관여범위도 더 제한적이었다. 두 사람 중에 제니씨가 개인시간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제니씨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나 지지가 되는 사람이 없었다. 신에엄마는 주말에 교회사람들을 만나면서 큰 힘을 얻는 듯 했다.

제니씨의 경우 낮에는 살림을 하고 저녁 때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썬빙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와 일상을 같이 하고 있었다. 딸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나면 어머니와 단 둘이 집에 있는데, 각 방에서 나오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따로 보낸다고 했다.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하루종일 보거나 노인정이나 보건소에 가서 자신의 소일거리를 한다고 했다. 제니씨는 집안살림을 챙기고 음식도 만들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이 해준 음식을 먹지 않고 따로 간단하게 반찬 한두가지와 김치를 놓고 식사를 하신다고 했다. 식사는 같이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니씨는 낮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태국과자를 만들고 팔기 시작했다. 두부과자처럼 생긴 과자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집에 과자를 튀기는 기름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시어머니는 제니씨의 새로운 사업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제니씨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에는 시내에 있는 한국어교실과 한국음식 요리교실 등을 다니면서 배우기도 했는데, 교통비가 들고 그다지 차도가 없어서 그만두고 이제는 거의 집에 있다. 그나마 만나는 사람들은 혜정이네 학교에 있는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이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출입하는 다른 나라의 대표 결혼이주여성(소위 ‘국가대표’)들이었다. 이들과 관계는 좋았지만 특별히 사교를 하거나 같이 다니고 자주 만나지는 않는다고 했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연구자: 친구는 없으세요?

제니씨: 조금 있어요. 학교에서 만나고, 센터에서도 만나고. 내가 나이가 좀 많아서 다들 ‘언니’라고 불러요.

연구자: 같이 하는 일이 있으세요?

제니씨: 학교 행사준비 같이 하고...

연구자: 따로 안 만나세요? 점심 같이 먹고, 차 같이 마시고?

제니씨: 집에 놀러가는 경우 있어요. 저보다 늦게 태국서 온 동생 있어요. 거

기는 시어머니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밖에서는 잘 안 만나요. 갈 곳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어요. 식당은 너무 비싸요.

연구자: 태국서 온 동생 집에는 얼마나 자주 가요? 한달에 한번?

제니씨: 아니... 자주 안 가요.

제니씨는 학교와 센터 외에는 출입하는 데가 많지 않았고, 관계망도 그리 넓은 것 같지 않았다. 반면에 신애엄마는 교회공동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신도들과 주말마다 교회에서 만나 오랜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있었다. 연구자가 교회에 갔을 때 신애엄마는 예배가 시작한 10시부터 점심식사가 나가고 정리할 때까지, 그리고 성경공부까지 다 마치고 오후 3시가 지나서 집에 갔다. 아이들도 교회에 그 시간까지 같이 있었는데, 교회가는 일은 자신에게 중요해서 그 날은 오전에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돌보고, 자기가 귀가하는 약 4시 경부터 어머니를 돌본다고 했다. 일요일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신애엄마: 교회에 오면 일주일 지내는 것이 참 쉬워져요. 여기 와서 친구들 만나고 서로 사는 이야기, 애들 키우는 이야기 하니깐 좋아요.

연구자: 교회에 친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중에도 만나세요?

신애엄마: 아뇨, 주중에는 서로들 바빠서 못 봐요. 그런데 주말에만 만나도 좋아요.

연구자: 왜요?

신애엄마: 서로 잘 알고, 믿는 것도 같고. 같이 계획도 세우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힘이 되요.

신애엄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평일에는 시어머니 돌보기와 아이들 돌보기로 매우 바빴지만, 일요일 시간만은 자신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교회 신도들과의 만남에서 큰 보람과 힘을 얻는다고 했다. 물론 S시 통일교 교회에는 신애엄마 말고도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도 여러 명 있었다. 신애엄마는 일본사람 뿐만 아니라 태국과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도 친해 보였다. 신애엄마는 신실하기도 했지만, 교회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한국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찾는 듯 했다.

2) 지병

가족돌봄자는 돌봄을 하다보면 병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돌봄수혜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연구자가 두 결혼이주여성을 만났을 때 두 사람 모두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다. 제니씨는 키도 작고 (150cm가 채 안 됐다) 몸무게도 적게 나갔는데, 임신했을 때 입덧도 심하고 남편없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자신을 미워하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힘들어서 몸무게가 38kg까지로 떨어졌던 적이 있었다. 연구자가 만났을 때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많이 마르고 외소한 체구였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 식단조절과 스트레스 조절을 하고, 운동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연구자: 그렇게 말했는데 무슨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제니씨: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으세요?

제니씨: 글썄요. 생각 별로 하지 않아요. 사는 데 문제 없어요.

연구자의 질문에 제니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태도였는데, 생활고와 외로움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패이고 어두운 편이었다. 제니씨에게 가장 큰 과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었다. 대화다운 대화를 해보려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워봤고, 영양보호사와 어머니가 텔레비전 드라마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을 보고 드라마도 열심히 봤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혜정이를 통해서 말을 전할 뿐이었다. 제니씨는 그래도 가끔씩 어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병원에서 하는 얘기를 모두 알아들을 수 없어서 “슬프다”고 했다. 표현을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슬프다” 말에 “아쉽다”, “좌절스럽다”의 느낌이 도사리고 있었다. 본인이 영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집에서 시어머니를 도와드리면 그것이 가구의 소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제니씨는 영양보호사 시험에 도전했다. 그런데 두 번 낙방하고 한국말이 어려워져 이제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제니씨에게는 남편과 떨어져 사는 데서 오는 고립감과 불안, 이유모를 시어머니의 냉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생활고가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신애엄마는 연구자와 만날 당시에는 바쁘지만 활력있는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별히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했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자신의 식생활 습관에도 신경쓰고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밥을 할 때에도 현미밥을 섞는 혼식을 하고, 소금과 설탕을 많이 안 쓰는 식단을 따른다고 했다.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신애엄마는 건강관리를 잘 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런데 조사시점, 2월에는 건강했으나 그 해 가을에 본인이 “많이 아프게 되어서” 시어머니를 부득

이하게 요양원으로 보냈다고 했다. 애기인즉슨, 본인이 6개월 전부터 방광염이 낫지를 않아서 “만성방광염”을 달게 되었고, ‘위치현기증’이 생기면서 쓰러져서 머리를 다칠 뻔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위궤양까지 와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신애엄마는 어른에 대한 수발에 자신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연구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S시를 떠나기 전에 신애엄마에게 “돌봄제공자가 고된 돌봄으로 소진되어서 아플 수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고 쉴 때는 쉬어라”고 얘기해준 것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신애엄마는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보내놓고 나니깐 슬프고 힘들다”고 했다. 돌봄은 감정노동으로 그 일이 끝나도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cf. Carter, 1994), 신애엄마는 본인이 소진되었어도 자신이 할 도리를 다 못했다는 의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4. 정리 및 논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사례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돌봄은 각 가정의 직면한 ‘돌봄공백’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 이유와 경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돌봄과정과 이에 대한 의미화도 다르게 나타났다. 신실한 통일교 여성의 경우 노인부양과 돌봄은 본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과업으로 인식되었던 반면에, 통일교의 소개로 결혼을 했지만 결혼과정을 연애로 해석하고 있는 여성은 예상치 못했던 일련의 과정으로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다. 두 여성은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가족이 재생산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그 과정과 형태가 불안정하고 본인에게는 힘겨운 것이었다. 여기서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돌봄을 수행하게 된 과정, 이에 대한 각자의 의미부여와 사회관계망, 본인의 건강을 주요 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신애엄마와 제니씨 모두 결혼과 함께 시부모와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주된 이유로 남편이 어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신애엄마의 경우는 대가족제도를 통일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다세대 가구를 이룰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하면서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제니씨의 경우는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예견하지 못했고, 결혼 후에는 어머니가 경제력이 없어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남편의 부채상태에서 쪼들리는 살림에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힘들어했다. 그러나 남편이

없는 동안에 자신과 딸을 챙기고 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데, 다세대의 다문화 가정은 조부모가 비교적 젊고 건강할 때에는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물론 이는 사람과 방법에 따라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있다), 며느리가 한국어나 요리를 배우러 가게 하면서 손자녀를 돌봐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니씨의 경우, 시어머니와 같이 잘 지내지는 않아도 오랫동안 남편없이 셋이서 살아 온 세월이 10년을 넘어서 서로 의존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나가서 돈을 벌고, 어머니는 딸을 돌보며 부분적으로 살림을 돕는 일도 하고 있었다. 신애엄마의 경우에는 시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혼자 사는 분을 모시고 와서 돌보게 된 경우이지만, 제니씨의 경우에는 상호의존을 하다가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서 돌봄자의 역할의 비중이 커진 경우이다. 두 사람 모두 가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제니씨의 경우, 본인의 존재와 돌봄은 가족구조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신애엄마의 경우는 주돌봄자(main caregiver) 역할을 시누이와 함께 수행하고 있었지만, 제니씨는 주돌봄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봄역할이나 관심을 끊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제니씨에게는 불분명한 역할은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면이 있었고, 가족 안에서 자신을 주변화시키고 있었다. 제니씨가 주돌봄자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니씨는 그 집의 가장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기본살림과 자녀의 양육과 시어머니의 주변정리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은 치매결린 어르신을 돌보는 것과 같은 '가시적인 돌봄' 또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돌봄이라는 것과 성격이 달랐다. 그녀는 사실상 돌봄을 하지만 돌봄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제니씨는 남편의 공백을 메우고, 또 그 가정에서 발생한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가족적 차원에서 재생산되는 것은 끈끈한 가족적 유대나 결속력이 아니고 가족의 취약성과 본인의 소외였다.

신애엄마는 가족(시누이)과 교회식구들로부터 충분한 인정도 받고 상호작용하면서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돌봄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제니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고, 친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연결망이 없었다. 신애엄마는 통일교에서 강조하는 어른에 대한 공경과 효도를 몸소 실천하고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의미부여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치매가 결린 시어머니에 대한 친근한 감정이나 연민이 많지 않아도 그 일을 기꺼이 잘 수행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통일교의 가족주의 교리와 효행의 미화는 사실상 국가와 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신실

한 통일교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이행할 때에는 이 교리를 실천한다는 의지가 이미 매우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다자녀의 출산, 노인돌봄과 대가족에 대한 수발은 그들이 예측했던 일로, 본인들이 선택한 인생의 여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그들이 직접 선택했다는 이유로, 한국사회는 그들을 '효부'로 미화하고 효부상을 수여하는 등, 돌봄을 개인이 수행한 미덕으로 환원시켜버린다. 최근에 지방 소도시와 농촌에 결혼이주여성들, 특히 통일교 신도 여성들이 효부상을 수상하는 새로운 추세가 등장하고 있다(서울시, 2011; 아크로판 뉴스, 2009). 한국사회는 그들의 돌봄을 미덕으로 칭송하면서 국가와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돌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애엄마와 제니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각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초래하고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기존의 돌봄연구에서는 돌봄수혜자가 가족돌봄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고 표현하는 경우에 돌봄자에게 돌봄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어려워도 보람있는 일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다른 가족들의 인정이나 사회적인 지지도 돌봄자가 돌봄과정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게 하는 과정이다(Carter, 1994). 두 사례 모두 돌봄자와 돌봄수혜자간에 애뜻한 관계가 있다거나 연민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친밀성이 없는 의무적 관계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신애엄마의 경우, 자신의 신앙과 교회의 신도들이 돌봄자로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 같은 처지에 있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 그런 지지망이 전혀 없는 제니씨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매우 달랐다. 그렇지만, 신애엄마가 정신적으로 돌봄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도, 신체적으로 그러하지 못했다. 두 사례 모두에서 돌봄자는 건강이 취약했는데, 가족의 재생산을 가까스로 일임하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를 재생산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있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다.

V. 결론

이상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노인돌봄 경험을 한국의 사회적 재생산과 돌봄공백의 위기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위의 두 사례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시어머니를 돌보게 된 과정과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사회적 재생산과 관련해서 다음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사례들은 결혼이주여성이 속한 가정에서의 가족재생산이 힘겹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방도시에서의 가족재생산에 대한 시도로 보이기

는 하지만, 통일교 여성의 경우에는 가부장제와 희생적인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면서 지탱되는 가족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태국출신 여성의 사례에서는 돌봄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조가 매우 불안정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두 사례 모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 도전받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가족은 과연 어떠한 가족인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족으로의 편입은 가족을 재생산 시키지만, 한편 불편등하고 젠더화된 글로벌 질서를 그대로 가족 안에서 재생산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결혼이주여성 가정이 처해 있는 빈곤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붕괴 직전의 가정은 결혼이주자가 들어오기 전부터 가정경제기반이 약한데, 그러다보니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결혼이주자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없이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은 없다. 자존심 또는 경제력 확보, 또는 외로워서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리를 찾아보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 돌봄을 수행하는 결혼이주여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요양보호 수당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중 성공해서 수당지급을 챙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주여성들은 제니씨처럼 번번이 시험에 낙방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직종은 젠더화된 노동으로 임금이 낮은 편이고, 노동조건도 열악하며, 노동시장이 포화된 상태라 인력의 공급과잉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직을 할 수 있게 하는 '자립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몇 개 지자체에서는 그들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지역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되며, 그들의 노인수발이 당연한 것처럼,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된다. 전북 임실군의 결혼이주여성 25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기사는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노인요양실과 재가센터 등에 취업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거듭나게 됐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와 이웃 노인들도 마음 놓고 돌볼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0. 2. 18일자; 문현아, 2012: 35에서 재인용).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매우 낮다는 것인데, 이는 돌봄노동이 젠더화되어 있어 임금의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정진주, 2012). 돌봄노동의 젠더화와 편파에 대한 대책 없이 결혼이주여성을 공식적 돌봄시장으로 투입하는 것은 요양노동의 젠더화, 주변화를 더욱 더 심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결과적으로는 돌봄의 질도 저하시켜서 사회적 돌봄을 정착시키는 데 걸림돌이 된다.

세 번째, 결혼이주여성의 노인돌봄은 그것 자체로서는 숭고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현재 돌봄을 사회화 시키려는 움직임들의 모멘텀을 약화시킨다. 가정에서의 며느리의 돌봄을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재생산될수록 가족구성원이 돌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여성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인식도 재생산된다. 그렇게 결혼이주여성의 노인돌봄은 다시 돌봄을 사적영역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돌봄의 사회화를 지연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가 나서서 돌봄공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모멘텀을 지연시킬 수 있다. 국가가 가족돌봄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들을 지원해준다면 이들의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공적 차원에서 '부양자를 지원하는 접근'을 돌봄의 사회화에 포함시키면 (cf. 한경혜, 1998), 결혼이민자의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 이는 결혼이민자 가정뿐만 아니라 노인돌봄을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반 한국인 가족돌봄자 가정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중인 '가족돌봄자지원'의 제도화를 한국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Cho & Kim, 2017).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가 더 이상 하기를 거부하는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돌봄수행은 우리사회에서의 돌봄의 자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생산패러다임이 한국사회에서의 돌봄을 주변화시키고, 일반 한국인 여성들이 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대체 돌봄인력의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가정에 투입되면서 한국의 '주류사회'는 개발자유주의를 심화시키며, 성공과 개발, 발전, 소득향상의 욕망을 지속적으로 불들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결혼이주여성은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주체로, 한국사회의 '잔여적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 돌봄도 '잔여적 범주'로 자리매김되어 재생산된다. 이것은 돌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더욱 주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과 성장에 밀린 돌봄은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다. 결혼이주여성의 돌봄은 이러한 주변화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즉, '돌봄은 주변인에 의한 주변적 노동'이라는 인식을 정당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돌봄은 누구나 다 생애주기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로잘린 카터에 의하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곧 현재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과거에 돌봄을 수행한 사람, 앞으로 돌봄을 수행할 사람, 그리고 앞으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Carter, 1994).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돌봄을 수행해야 할 때가 오고, 또 돌봄을 받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다. 그런 돌봄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가족관계의 약화나 대체, 또는 가족돌봄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들이 온전하게 돌봄과

생산현장에서의 ‘일’을 건강하게 양립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라금(2006)이 지적한 것처럼,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돌봄노동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현실적인 임금이 책정되어야 한다. 돌봄의 위기는 인구학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가치와 그 사회경제적 위상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이주여성과 같은 무급의 대체돌봄 노동력으로 건강한 가족과 사회가 과연 재생산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이 강하고 두 사람의 사례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사례의 수가 적어 일반화의 어려움은 있으나 각 사례에서 노인돌봄이 발생하는 맥락과 형태, 그것을 지탱시켜주는 요인들을 찾아서 제시하고자 했다. 그런데 한 사례는 일본출신의 통일교 교도로 이미 가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깊이 내면화한 경우여서 그렇지 않은 결혼이주여성과 대비되고,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두 번째는 각 사례에서 돌봄수혜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돌봄연구에서는 돌봄수혜자의 입장이 매우 중요시되는데, 본 연구는 가족돌봄자 중심으로 구성되고 조직되었다. 앞으로의 연구는 돌봄수혜자의 입장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7.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김구. 2008.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접근』. 비앤엠 북스.
- 김명혜. 2012. “한국남성들의 서사를 통한 국제 결혼과정의 재구성 및 분석.” 『구술사 연구』 3(2): 39-78.
- 김유경. 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151: 29-52.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미·류유선. 2013. “재생산적 전환 과정 속의 농촌지역 결혼이주자의 생산/재생산 활동.” 여성학 논집 30(2): 63-93.
- 문현아. 2012. “글로벌 사회변화 속 젠더화된 돌봄노동의 이해.” 정진주 외 지음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건강한 돌봄을 위하여』. 한울. pp. 16-56.
- 신경아. 2010. “노인돌봄 내러티브에 나타난 단절과 소통의 가능성.” 『가족과 문화』 22(4): 63-94.
- 여성가족부. 2006. 『200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
- 유은주. 2011. “국제결혼 가족과 며느리의 돌봄.” 김혜경 편. 『노인돌봄. 노인돌봄의 경험과 윤리: 좋은 돌봄을 위하여』. 양서원. pp. 147-168.
- 이태정·이용수·신현구·김명수. 2013.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상태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인구학』 36(3): 21-44.
- 이재경. 2004. “한국 가족은 ‘위기’인가?: ‘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비판.” 『한국여성학』 20(1): 229-244.
- _____. 2009. “사랑과 경제의 관계를 통해서 본 이주결혼.” 『여성학논집』 26(1): 183-206.
- 이현옥. 2016. “동아시아 맥락에서의 돌봄레짐 변화와 이주의 여성화 :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10: 239-269.
-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파주: 창비.
- _____. 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18(3): 63-91.

- 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 2015.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 소득보장, 교육,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3): 1-38.
- 전라남도. 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보고회 자료집.
- 정진주. 2012. “재가요양보호사.” 정진주 외 지음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건강한 돌봄을 위하여』. 한울. pp. 136-180.
- 조한혜정. 2006.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조한혜정 외 지음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또하나의 문화. pp. 13-41.
- 최희경. 2009.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과 돌봄 서비스의 질 보장』. 서울: 집문당.
- 폴브레, 낸시. 2001. 『보이지 않는 가슴』. 윤자영(역). 또하나의 문화
- 한경혜 1998. “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21 세기 변화전망 및 지원책 모색.” 『한국노년학』 18(1): 46-5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허라금. 2006. “돌봄의 사회화.” 조한혜정 외 지음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또하나의 문화. pp. 42-58.
- 서울시 공식블로그. 2011. 1. 3. “효부상 받은 일본 며느리, 그녀가 제야의 종 올린 사연은?” <http://blog.seoul.go.kr/1681>.
- 아크로판 뉴스. 2009. 12. 28. “제야의 종소리’로 희망찬 새해 연다.” <http://www.acrofan.com/ko-kr/live/news/20091228/00000028>.
- Bakker, I. and Gill, S. 2003. *Power, 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Human In/security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Palgrave McMillan.
- Carter, R. 1994. *Helping Yourself Help Others. A Book for Caregivers*. New York: Times Books.
- Cho, K. and Kim, Y. 2016. “A Study on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s in the USA: The Case of the State of Georgi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7(2): 1-15.
- Daly, M. 2002. “Care as a Good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31(2): 51-270.
- Esquivel, V. 2010. “Care Workers in Argentina: At the Crossroads of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Care Servic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9(4): 477-493.
- Kim, H. K. 2014. “Feminization of Migration and Global Gender Injustice.”

OUGHTOPIA 29(2): 5-32.

Kofman, E. and Raghuram, P. 2009. *The Implications of Migration for Gender and Care Regimes in the South*. UNRISD.

Lee, H. 2012. "Political Economy of Cross-Border Marriage: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Reproduction in Korea." *Feminist Economics* 18(2): 177-200.

Parreñas, R.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Univ. Press.

Yeates, N. 2009. *Globalizing Care Economies and Migrant Workers: Explorations in Global Care Chai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7. 04. 24. 접수. 2017. 05. 08. 심사. 2017. 05. 24. 채택)

Abstract

A Case Study on Migrant Women through Marriage as Caregivers for the Elderly within the Context of Social Reproduction

Kyungjin Cho,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caregiving role of migrant women through marriage, and the implications of their caregiving within the context of family and social reproduction. Korea has been experiencing a “crisis” in caregiving due to a declining birth-rate and rapid entry into an aging society. The crisis in social reproduction began to show in the most underdeveloped and marginal areas of the nation, the agricultural rural areas. In order to maintain an already tenuous family structure, the state has encouraged rural men to marry women from less affluent countries to enhance social reproduction. Through a qualitative study of two migrant women families of a small province city, my findings show that migrant women engage in caregiving for their in-laws both willingly and unwillingly. Both demonstrated burnout and significant health problems, but depending on the amount and quality of social support, each attached different meaning and value to her caregiving experiences. In conclusion, I argue that caregiving of peripheral people exacerbates the peripheral place of caregiving in Korean society, allowing both state and society to pursue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the implementation of universal social care.

Key Words: migrant women through marriage, reproduction of family, social reproduction, caregiving, social care